



코로나 시대 필수서비스인데도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고통

택배 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장시간·고강도·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온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지속 중이다. 울산 한진택배 노동자들과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기쁘게도, 얼마 전 거제지역 한진택배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업무량 증가를 막아냈다.

코로나 시대 택배는 필수서비스가 됐지만, 정작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아 왔다. 노동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끼니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한 채 일하기 일쑤다.

“[2020~2021년에] 21명의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보호받을 법 조항조차 없는 택배 현장에서 예견된 죽음이었습시다.”(최남선 전국택배



전국에서 모인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월 20일 경기도 군포복합물류센터에서 전국확대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노조 CJ대한통운본부 남울산지회 노동안전2부장)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은 배송 전 물품 분류 작업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 왔다. 적게는 하루 2시간, 많게는 5~6시간이나 소요되는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지난해 6월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이 발표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고, 분류 작업을 할 경우 별도의 수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늘도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1월 초 전국택배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퍼센트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분류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사측은 분류 작업 비용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겠다며 택배 요금을 올렸지만, 인상분의 60퍼센트 이상을 자기 몫으로 챙겨 갔다. 심지어 과로사를 유발할 근무조건(당일 배송, 주 6일제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강요하려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하는 사측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나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소식을 만나 보세요!



[영상]
CJ대한통운·한진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
https://youtu.be/4AsET4_Z4gc



[기사 모음]
설 특수기 택배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https://wspaper.org/bundle/6220>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CJ대한통운에 면죄부 준 국토교통부

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뒤이어 택배·화물 기업주들은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공격에 나섰다. 친사용자 언론들도 파업을 반대하는 일부 비노조원들의 시위 소식을 인용하며 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완전히 엉터리다. 택배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가 CJ대한통운 측에 현장 조사 시점을 사전에 알려서 대비할 시간을 줬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점검을 한 25군데 중 72퍼센트(18곳)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도 인정하듯,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거의 줄지 않았다.

결국 이번 발표는 CJ대한통운 사측엔 면죄부를 주고, 전국택배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을 흠집 내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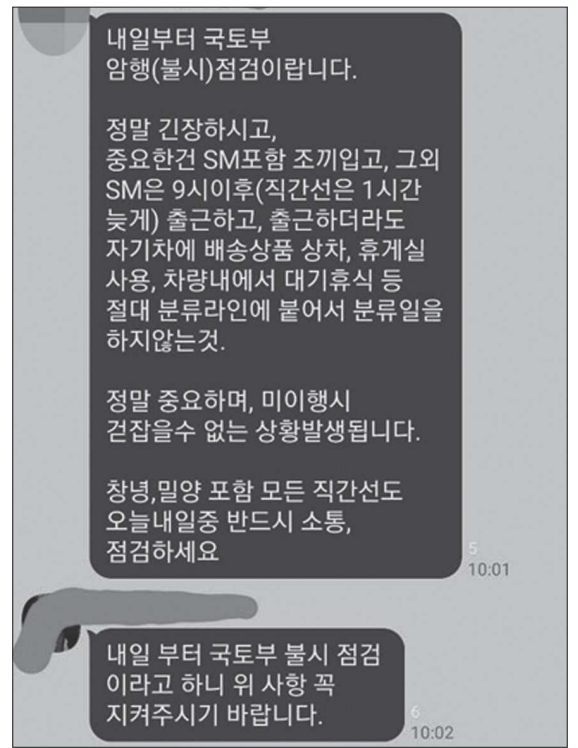
보수언론의 비난과 달리, 파

업을 지지하며 동참하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벌어진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시기에, 아래로부터의 단호한 투쟁을 통해 정부와 사측을 압박해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가 팬데믹 하에서 고통을 강요당해 온 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유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저항을 좌절시키려 한다. 그럼으로써 불만 속에 투쟁을 준비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 한다.



국토부 점검에 맞춰 '눈가림' 대책을 준비한 CJ대한통운 사측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도 투쟁 중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분류 인력 총원 등 약속 이행은 않고,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특수고용)의 기존 임금(수수료)마저 삭감하려 한다.

합의를 지키라며 우체국 택배 노

동자 15명이 단식 농성을 벌이자, 우정사업본부는 적반하장으로 농성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이를 방관하는 청와대를 향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고통 강요 속에서 집배 노동자들(정규직 공무원)도 시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수년째 집배원 증원 약속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

는 상황에서 지난주에만 집배원 2명이 과로사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과 정부를 향해 싸움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https://wspaper.org>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유익한 좌파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https://stu.workerssolidarity.org>

f wsstu @ stu.ws
@ws_stu